

신라 건국 천년 왕국 신라 일어서다

기원전 57년



황남대총 북분 금관(98호북분)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1 개요

경주에서 발흥한 사로국(斯盧國)은 진한(辰韓)의 맹주 국가로서 정복 전쟁과 교역을 통해 세력을 확장시키며 진한 제국(諸國)을 점진적으로 통합해 나갔다. 진한의 여러 나라를 통합을 마무리한 후 4세기 무렵부터 나라 이름을 신라(新羅)로 바꾸고 왕호도 이사금(尼師今)에서 마립간(麻立干)으로 바꾸었다. 이 시기 신라 왕경이 있던 경주에서는 월성(月城)이 건설되고 대형적석목곽묘가 축조되는 등 고대국가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2 사로국의 성장

신라의 전신이 되는 사로국의 성립 과정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 초기 기록에 전하는 여러 설화적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서기전 1세기 전반 경주 일원에는 여섯 촌(村)의 주민집단이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이어서 박씨·석씨·김씨 집단이 경주 일대로 연달아 이주해 오면서 서로 우위를 다투었고, 각기 초창기 사로국을 구성하는 읍락이 되었다.

한편, 고고학적 자료를 근거로 초기 사로국을 구성하였던 주민집단에 대해 살펴보면 대체로 이들은 기원전 2세기 말~1세기 초 무렵 경주 분지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초기철기문화를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연이어 철기문화를 배경으로 한 다른 집단이 대체로 경주 동남쪽 방면 울산으로부터 경주로 진입하는 길목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목관묘 유적이 입실리·구정동·조양동과 경주 분지의 탑동·황성동·덕천리 등에 분포해 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육로를 통해 내려온 집단과 울산 지역으로부터 해상을 거쳐 올라온 집단의 서로 다른 두 계통의 문화가 경주에서 만나는 양상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은 사로국이 진한의 중심세력이 부상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사로국은 초기국가를 성립시킨 이후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진한(辰韓)의 중심세력으로 발전해 갔다. 진한 사회가 성립한 시기는 대략 기원전 1세기까지 소급되는데, 사로국은 이러한 진한의 12개 나라를 점차적으로 아우르며 맹주로 성장하였다. 한편,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서는 대략 2세기 무렵이 되면 한(韓)과 예(穢)가 성장하여 군현(郡縣)에게 위협이 되기 시작하였다는 기록 [관련사료](#) 이 보인다. 이 기록을 통해 사로국을 중심으로 한 진한 사회 또한 한(漢)의 군현에 위협이 될 정도로 발전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